

TV 4월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⑤:50 웰컴 투 시월드(재)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00 웰컴 투 돈월드(재)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 손을 잡아〉	00 KBC 뉴스지금 30 남도의 아침
8 10 채널A 아침뉴스	25 아침미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두 여자의 방〉
9 00 신문이야기 독직구소	30 KBS 뉴스	00 TV 소설 〈은희〉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뉴스 10 50 정치이야기 是是非非	00 특별생방송 나눔이 행복입니다 1부	50 지구촌 뉴스		25 SBS 뉴스 40 일일드라마 〈잘 키운 딸 하나〉
11 5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10 스포츠 타임 20 사랑의 가족 50 수목 드라마 〈예쁜남자〉(재)	00 주말드라마 〈사랑해서 남주나〉(재)	2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00 KBS 뉴스 12	50 인간극장 스페셜(재)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미니시리즈 〈메디컬 탑팀〉(재)	00 SBS 12뉴스 30 건강클리닉 30 피우자 민들레(재)
1 00 뉴스특보	00 특별생방송 나눔이 행복입니다 2부			
2 00 직언직설		00 KBS 뉴스타임 10 스타 여행에 빠지다(재)	00 나미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송(재)	00 SBS뉴스 10 문화가중계(재)
3 00 그때 그 사람(재)	00 뉴스토크	00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25 꼬마신선 탈오제) 55 TV유치원 공디공	00 MBC 경제 뉴스 10 라이스맨 40 헬로 키즈 만들어볼까 똑똑	10 SBS 이슈인 사이드
4 10 박종친의 뉴스쇼 쾌도난파 1~2부	00 KBS 네트워크 특선 〈비밀반〉 55 트든 생활채초(재)	25 코파 반장의 동화 수사대 55 위기탈출 납바원(재)	30 푹? 푹! 퀴즈 스쿨	00 최강 탐플레이트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오그레피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 프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날씨와 생활 35 내마음의 크레파스
6 10 채널A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생생 정보통	20 불만제로 UP	05 전국 TOP10 가요쇼(재)
7 20 웰컴 투 시월드(재)	00 KBS 뉴스7 30 필통	50 일일 드라마 〈투비반지〉	15 일일연속극 〈오로라 공주〉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저널 때때부터 20 일일드라마 〈잘 키운 딸 하나〉
8 30 개국 2주년 특집 관찰카메라 24시간	25 일일연속극 〈사랑은 노래를 타고〉	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5 비터민	55 MBC 특별기획 〈제왕의 딸 수백향〉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한밤의 TV 연예
9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컬투의 배런다쇼	
10	00 생방송 집중토론 50 리얼체험 세상을 품다	00 수목드라마 〈예쁜남자〉	00 수목미니시리즈 〈메디컬 탑팀〉	00 드라마스페셜 〈상속자들〉
11 0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30 KBS 뉴스라인	10 근무중 이상무 2부	15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15 짝
12 10 모큐드라마 싸인(재) ①:20 특별기획 미래과학 콘서트 3부	30 네트워크 기획 문화산책 ①:10 KBS검찰다큐(재) 〈발굴추적 3·1절 운동의 숨겨진 대부 김구홍〉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세상의 모든 디큐 ①:35 다큐멘터리 3일(재)	35 MBC뉴스24 ①:05 MBC가요베스트 스페셜 55 스포츠 와이드 2013 농구대잔치 준결승	35 나이트라인 ①:05 테마스페셜

EBS

06:10 세계의 눈 07:00 곤 07:15 마이의 모형 07:30 꼬마버스 티요 07:45 로보카 폴리 08:00 당동영 유치원 08:20 풍선 코끼리 발루뿐 08:35 방구대장 뽕뽕이 08:50 모야모야 09:05 코코몽2 09:20 부모 〈한자신문 김도윤〉 10:00 한국기행 10:20 영의의 건강비결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방영이의 추억을 이기는 겨울 밥상 - 복여 유자썸과 김무침〉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 뉴스 12:10 EBS 초대석 13:05 지식채널e 13:10 출거운 수학 EBSMATH 13:20 시아틴 13:30 두키 탈출대 13:45 꼬마 철학자 휴고 14:00 잘난 채리우스 박사님 14:15 장난감 나라의 노디 14:30 척척폭죽 처갓집	15:00 열려라 아바디스 15:15 꼬마 기사 마이크 15:30 바두와 친구들 15:45 두비두바 눈보리 16:00 당동영 유치원(재) 16:20 아기 고릴라 동동 16:30 코코몽2 16:45 모야모야(재) 17:00 방구대장 뽕뽕이(재) 17:15 꼬마버스 티요 17:30 풍선 코끼리 발루뿐 17:45 로보카 폴리 18:00 마이의 모형 18:15 곤	18:30 생방송 보나하니 19:30 두키 탈출대 20:00 EBS 뉴스 20:20 다문화 사랑 20:30 세계테마기행 〈베트남〉 21:30 한국기행 〈정읍〉 21:50 EBS 다크 프라이밍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22:45 극한직업 23:15 세계의눈 〈특선〉 24:05 지식채널e(재) 24:10 한국 영화 특선 〈렌의 애가〉
--	---	---	--

EBS플러스1	EBS플러스2
00:00 기본과 특별한 01:50 내신 6강 02:40 포스 03:20 " 03:20 " 04:10 " 05:00 " 05:50 탐스런 06:40 고교특강 올림 #포스 07:30 " 08:20 탐스런 09:10 " 10:00 " 10:50 "	11:40 " 12:30 박분의 이수로 만나는 경제 13:00 탐스런 14:00 " 15:00 기본과 특별한 16:00 2015 수능 스타트 17:00 " 18:00 탐스런 19:00 " 20:00 " 21:00 " 22:00 고교특강 올림#포스 23:00 " 23:50 지식채널e
〈한국사〉 〈수학(상)〉 〈문학 I〉 〈문학 II〉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수학 II〉 〈물리 I〉 〈영어독해의 기본(2)〉 〈Basic Grammar〉 〈화학 I〉 〈생명과 화학 I〉 〈지구과학 I〉 〈물리 II〉	11:40 " 12:30 박분의 이수로 만나는 경제 13:00 탐스런 14:00 " 15:00 기본과 특별한 16:00 2015 수능 스타트 17:00 " 18:00 탐스런 19:00 " 20:00 " 21:00 " 22:00 고교특강 올림#포스 23:00 " 23:50 지식채널e 〈화학 II〉 〈생명과 화학 II〉 〈지구과학 II〉 〈물리 III〉 〈영어독해의 기본(2)〉(재) 〈Basic Grammar〉(재) 〈역사(상)〉 〈과학〉 〈세계사〉 〈한문〉 〈수학(하)〉 〈역사(하)〉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12월 4일(음 11월 2일 甲辰)



子

36년생 자초할 필요는 없느니라. 48년생 확인하는 습관이 실수를 최소화 해 줄 것이다. 60년생 서로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 72년생 소신이 필요하다. 84년생 정황을 살펴면서 숨고르기를 해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53, 37



丑

37년생 인내하며 기다려라. 49년생 세밀한 중간 점검이 확실한 성과를 보장할 것이다. 61년생 비위있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73년생 결정적인 시기이니라. 85년생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된다. 행운의 숫자 : 45, 12



寅

38년생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된다. 50년생 비운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법이다. 62년생 학수고대하며 바라던 것이 드디어 들어오는 모습이다. 74년생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87, 75



卯

39년생 책임이 있는 시간 활동이 성과를 좌우할 것이다. 51년생 모든 것을 차치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좋다. 63년생 표리가 완벽하게 일치해야 한다. 75년생 작은 일에 매달리면 차질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70, 98



辰

40년생 준비하지 않으면 당황하리라. 52년생 혼자서 조용히 처리해도 되는 문제이다. 64년생 기초가 튼튼해야 거대한 건축을 할 수 있느니라. 76년생 중요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가지치기를 잘 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59, 34



巳

41년생 기본적인 환경과 여건의 조성이 급선무이다. 53년생 공허한 명분 보다는 현실적인 실리가 더 낫다. 65년생 과하면 역효과가 나는 법이다. 77년생 위험 요소가 눈에 띄니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6, 85



午

42년생 진행 과정에서의 수고로움은 감수해야 한다. 54년생 스스로 해내는 것이 무방하다. 66년생 이를 데 없이 귀하지만 쉽게 잃을 수 있는 것이 보인다. 78년생 여러 가지를 함께 살펴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15, 65



未

43년생 정치하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 오해를 부르리라. 55년생 익히 다 아는 바이나 어림잡아서 처리해도 된다. 67년생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해결 되리라. 79년생 재충전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66, 26



申

44년생 참으로 아간다면 소중히 다루야 한다. 56년생 실질적인 이익은 적고 할 일은 많겠다. 68년생 규칙적이고 계획적이야 오래 갈 수 있느니라. 80년생 흐름의 양상과 정도를 살펴본 후에 판단하자. 행운의 숫자 : 88, 08



酉

45년생 당면 과제에 집중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이다. 57년생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정세가 편이하게 달라진다. 69년생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81년생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리라. 행운의 숫자 : 42, 50



戌

46년생 기회를 잃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한다. 58년생 미진한 부분을 손질한다면 매끄러워지겠다. 70년생 기대했던 바에 실패하여 허탈해질 수 있다. 82년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선결 문제이다. 행운의 숫자 : 29, 19



亥

47년생 상대적으로 가변적인 형세임을 알아야 한다. 59년생 방비책을 튼튼히 해두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71년생 굳이 내색하지 않아도 상대는 다 알고 있느니라. 83년생 천운신조하니 매사가 길하리라. 행운의 숫자 : 57, 79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행영!” ☎010-9790-8237

목 용종·성대 결절 극복 ... “노래 포기 못해”

5년 만에 신곡 ‘화애’로 돌아온 조관우

“살아남고자 하는 욕구로 신곡을 불렀습니다. ‘가니 가니’ 하는 가사가 제 목을 가리키는 것 같았어요.”

가수 조관우(48)가 새 싱글을 통해 신곡 ‘화애’로 돌아왔다. 마지막 앨범이 지난 2008년 11월이니 새 노래로 대중을 찾까지 5년여가 걸린 셈이다. 조관우는 “거진 포기 상태였다. 음반을 내도 안 될 것 같았다”며 “은퇴 음반이 되더라도 언젠가 제대로 내가 가진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을 했지만, 막연하게 때를 기다리기가 났다”고 그동안 겪은 마음고생을 털어놓았다.

그는 지난 2011년 MBC ‘일밤 - 나는 가수다’에 출연하면서 오랜만에 스포트라이트의 한가운데에 섰다. 시청자들은 흔치 않은 그만의 고음 가성을 다시금 떠올렸고, 경연에서 그가 선보였던 노래들은 음원 차트 상위권을 차지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거진 15년 만에 환기된 관심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게다가 매우 어둡게 찾아온 피 말리는 경연은 가수로서는 치명적인 목 용종과 성대 결절까지 불러왔다.

“노래 한 곡으로 승부를 보는 것은 저 같은 가수에게는 어렵습니다. 저는 잔잔하게 감동을 주는 스타일이거든요. 단발로 승부수를 던지려니 제가 지나지 않은 다른 목소리로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때부터 목에 상처가 생기고 혹이 붙었죠.”

자신의 전매특허인 높은 가성이 공연장에서 더는 나오지 않았을 때 그가 느낀 절망감은 컸다.

“목의 생명이 다했나 보다” 하고 생각했어. 제 생명이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한동안은 소리가 나오지 않아 ‘나쁜 생각’마저 했을 정도였어요.”

조관우는 지난해 7월에는 전 매니저가 휘두른 흉기에 상처를 입고, 올해 6월에는 몸

담은 예담엔터테인먼트의 변두섭 회장이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연이어 겪었다.

그럼에도 다시 새 노래를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예담엔터테인먼트 시절 만난 지금의 매니저 덕이다. 용종 제거 및 성대 결절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그에게 새 음반을 내도록 용기를 북돋웠다.

싱글에는 타이틀곡 ‘화애’, 자녀들을 생각하며 불렀다는 ‘메이비 유(Maybe U)’와 이들의 반주곡이 담겼다. ‘화애’는 우리 전통 음악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국악기 대신 현악 오케스트라와 밴드를 사용해 웅장한 느낌을 자아내는 곡. 특히 3옥타브를 넘나드는 조관우 특유의 가성을 심분 활용, 애절한 느낌을 극대화했다.

조관우는 “가니 가니 나를 버리고서, 내가 없는 곳에 너는 멀리 가려 하니”라는 노래의 가사가 마치 한때 잃어버릴 뻔한 자신의 목소리를 가리키는 것 같았다고 했다.

“‘화애(火愛)’에는 내 안에 있는 너를 태워 보낸다는 느낌을 담았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를 떠나보내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슬프다기보다는 잔인했죠.”

그는 “어려운 곡이지만, 반복해서 들으면 마약처럼 빠져드는 곡”이라며 “지금까지 내가 낸 노래 가운데 노랫말과 멜로디가 가장 슬프다. 클래식에 가깝지만 동양적인 감성이 들어 있기에 나에게 딱 맞춰진 노래”라고 소개했다.

데뷔 20년을 앞둔 그에게 자신의 가장 큰 무기일 법한 음색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그랬더니 “내 음색이 재수없다”는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다.

조관우는 “나는 마이클 볼튼 같이 허스키한 저음을 좋아하지만, 진성이 2옥타브 솟까지 밖에 나지 않는다”라며 “19세 때 클립 무대에 오르면서 가성을 쓰는 가수의 사례를 보며 지금의 목소리를 찾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말뉴스



“싱글맘에게 희망을” ... MBC 특집 다큐 ‘엄마의 꿈’

고소영, ‘좋은 언니’ 역할 토크 ... 내일 방영

배우 고소영이 미혼모(일명 ‘싱글맘’)들의 이야기를 담은 MBC 나눔 특집 다큐멘터리 ‘엄마의 꿈’에 출연한다.

3일 MBC에 따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 기획한 이 다큐멘터리는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는 싱글맘들을 조명해 내 용으로 오는 5일 오후 6시20분 방송된다.

싱글맘들과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꾸준한 기부를 해왔던 고소영은 이번 촬영에서 복지관 봉사활동을 하고 멘토가 되어주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여성들에게

‘좋은 언니’가 되어 주었다.

고소영은 “엄마가 됐어도 여전히 나에게 배우로서, 디자이너로서 꿈이 있는 것처럼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들

도 똑같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너무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되다 보니가 안스럽기도 하지만, 아기를 키우는 건 기특하고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소영은 싱글맘들과 시장을 보고 이유식을 만들어 먹이며 한 명의 엄마로서 진솔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연말뉴스



TV 하이라이트

양은냄비 공장의 열기



국한직업(EBS·밤 10시45분) = 60년대 후반, 어두웠던 부엌에 양은냄비가 등장했다. 지나온 세월만큼이나 찌그러진 양은냄비에 웃고 울던 그때 그 시절, 여기 시간이 멈춘 듯, 수십 년 동안 양은냄비를 만들어온 사람들이 있다. 하루 물량 3000개, 100여 가지의 제품을 생산하는 이들은 대부분 30년 이상의 장인들이다. 달고구, 식히고 30번의 손질을 거쳐야만 단 하나의 제품이 완성된다. 특히 단단한 알루미늄이 냄비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온도를 이용한 정교한 힘 조절이 요구된다. 자칫 실수라도 하게 되면 밑바닥이 터지기 일쑤다. 이후 공정 과정에서 나온 알루미늄 찌꺼기들은 용해 공장으로 옮겨진다. 감성을 담은 그릇, 양은냄비를 만드는 사람들, 양은냄비 공장의 치열한 땀의 현장을 찾아간다.

독도 수호 24시간



관찰카메라 24시간(채널A·오후 8시30분) = 독도에 입도 가능한 일은 1년에 불과 50여 일. 과연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을까. 독도를 가보지 않고 예곡심을 논하지 마라. 몇 번의 도전 끝에 독도 입도에 성공한 관광객들. 첫발을 내딛는 순간 벅찬 감동에 탄식이 절로 터져 나오는데, 독도에서 허락된 시간은 단 30분이다.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24시 첩보경계로 독도를 수호하는 경비지 방경찰청 소속의 독도경비대는 ‘진짜 사나이’보다 더 흥미롭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진 독도경비대의 24시간이 전격 공개된다. 제주도보다도 광범한 작은 섬을 찾는 한국관광객은 연간 15만 명이다.

한국인이란면 꼭 하는 일이 있으니, 바로 나의 문화 답사기이다.

몸바이 도시락 배달부



리얼체험 세상을 품다(KBS1·밤 10시50분) = 몸바이 시민들의 점심을 책임지는 다 바울라. 이들은 출근과 동시에 고객들의 집을 방문하며 배달할 도시락을 수거한다. 이 도시락을 집결지에 가져와 분류한 뒤, 기차에 싣고 목적지로 이동해 고객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해준다.

에드워드 권은 그동안 선배 상카르와 함께 돌아다니며 배운 실력으로 혼자서 도시락을 수거하게 된다. 도시락 수거를 마친 뒤, 기차에 탄 에드워드 권, 선배 상카르는 에드워드 권이 수거한 도시락을 개수를 확인해 보는데, 한 개가 비어있는 것을 발견한다. 에드워드 권은 수거할 때, 한 건물에 두 개의 도시락을 수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었던 것. 그 사실을 알고 에드워드 권은 부랴부랴 기차에서 내린다.